

조선

美 Shale gas, 중요한 것은 경제성 확보

2013. 5. 13

조선/기계
Analyst 박무현
02.3779-8967
bossniceshot@etrade.co.kr

경제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비교 대상

미국은 '01년 캘리포니아 정전 이후 주요 LNG수입국이 될 것처럼 보였으나 Shale 층의 발견으로 이 같은 예상은 뒤집어졌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Shale gas 생산량 증가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 2010년 이후 미국은 Shale gas 생산을 위해 90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이 투입되었으며,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CRA의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내 Shale gas를 소비하는 것이 수출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에서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낮은 가스가격은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므로 미국 제조업의 신규고용창출이 LNG수출의 경우보다 7배 가량 유리하며, 부가가치창출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Shale gas가 수출과 내수소비 어느 쪽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인지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미국 Shale 가스는 PNG와 경쟁구도 형성할 전망

Alcoa Inc, Dow Chemical Co.,와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은 미국 내 가스 가격이 낮은 수준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 단체들은 값싼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고용창출과 재정적자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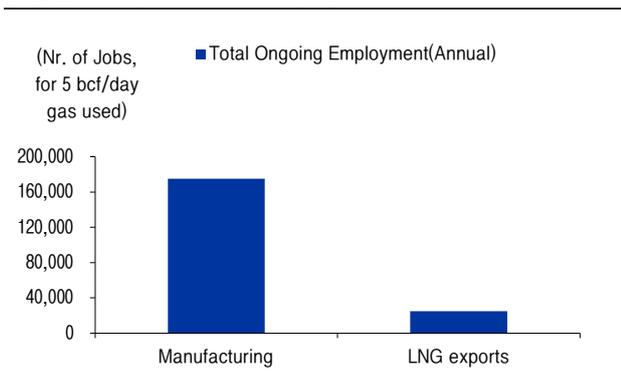
미국 내에서도 천연가스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인 수요영역은 가스발전과 천연가스자동차(NGV)이다. 특히 미국은 현재 56GW의 석탄발전이 존재하며 이들은 미국내 발전의 18% 수준이다. 56GW의 석탄발전은 2020년이면 대부분 퇴역하게 된다.

미국의 Shale gas 생산량은 '05년 이후 늘어나고 있으며 천연가스 순 수입량은 '08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최근 북미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늘어나는 천연가스 수요와 이에 따른 PNG 공급증가가 이끌고 있다. 따라서 미국 Shale gas는 북미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PNG공급과 주된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Shale gas가 아시아로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2020년 전후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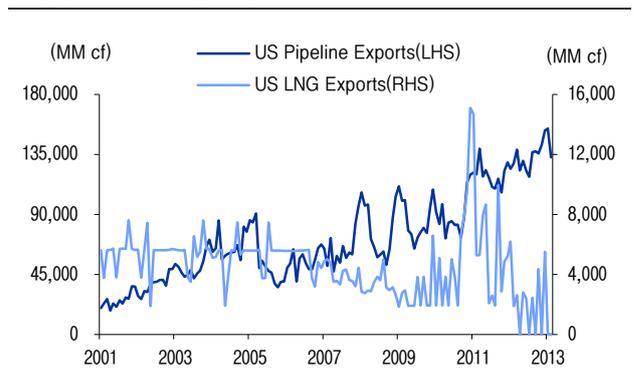
0

[그림1] Comparativeness of Employment



자료: CRA,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US Natural gas Exports



자료: EIA,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무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보류